

토니 훔 전 하원의원 "북 억류 미 대학생 석방 위한 역할 기대하지 않아"

등록 2016.01.24 16:40:27 | 수정 2016.12.28 16:30:36

【서울=AP/뉴시스】권성근 기자 = 외교관 출신으로 북한에 6개월간 억류됐던 미국인 제프리 파울의 석방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토니 훔(민주·오하이오) 전 연방 하원의원은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또 다른 미국인 오토 워비어 석방 중재자로 나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울은 2014년 4월 북한을 방문했다가 청진에서 성경을 몰래 유포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학생인 워비어는 중국 시안(西安)에 본사를 둔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지난 2일 북한 당국에 구금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워비어가 미국 정부의 묵인과 조종 아래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했다고 보도했지만 어떤 형태의 적대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워비어와 파울은 모두 오하이오 남서부 지역 출신이다.

버지니아대학 학생인 워비어는 신시내티 지역에서 살았으며 파울은 마이애미스버그에서 64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훔 전 하원의원은 미 국무부와 파울 가족과 변호사의 요청으로 파울 석방의 중재자가 됐다고 말했다.

훔은 "북한인들은 매우 거친 사람들이다"라며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점과 더불어 그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훔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 대립 관계에 있고 외교 관계가 사실상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 전문 여행사인 '영 파이어니어 투어스'의 대표인 개레스 존슨은 자사 고객인 워비어는 평양 양각도 호텔에 묵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워비어는 지난 2일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평양의 공항에서 체포됐다.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북한이 워비어를 가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밝히지 못했이라며 그의 석방을 촉구했다.

ksk@newsis.com